

Papyrus 967과 MT의 본문-비교(A textual-comparative methodology)를 통한 에스겔서 구원 선포의 신학적 분석: ‘하나님의 영(루아흐, רִּיחַ)’을 중심으로*

김주현(한세대)

1. 들어가는 말

Papyrus 967(이하 P967)¹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며, 특히 에스겔서의 11장 이후 대부분이 온전하게 보존된 사본이다. P967의 본문은 라틴어 사본인 코덱스 비르체부르겐시스(Codex Wirceburgensis)와도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사본의 문헌학적 중요성은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보다 약 1세기 앞서 작성되었고,

* 이 논문은 2024년 9월, 126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 대해 논찬해 주신 정미혜 박사(서울신대)와 질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 2세기 말 또는 3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에스겔서의 가장 오래된 고대 헬라어 성서 필사본으로, P967은 에스겔의 가장 이른 자료적 증거로, 잃어버린 사본의 시작 부분(겔 1장-11:24)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을 모두 보존하고 있다. 쿰란의 11번 동굴에서 발견된 에스겔 두루마리는 석화되어 열어볼 수 없는 상태다. I. A. Lilly, *Two Books of Ezekiel: Papyrus 967 and the Masoretic Text as Variant Literary Editions* (VTSup 150: Leiden/Boston: Brill, 2012), 1-2.

오리게네스의 헥사플라(Hexapla)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P967은 오랜 기간 학문적 연구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이 사본의 발견 및 출판 시기가 비교적 늦었고, 20세기 초까지도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여러 나라에 분산된 보관 상태 또한 연구에 장애가 되었다.³ 특히 P967의 에스겔서 본문은 부분적으로만 편집되었고, 영어 및 독일어 번역본이 부재하여 원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점이 연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⁴ 이로 인해 P967은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

P967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다수의 학자들이 마소라 본문(이하 MT)을 성서 연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⁵

2 K. Finsterbusch/J. Norbert, *MTL-Ez 11, 25-48, 35 und LXX 967-Ez 11, 25-48, 35: Synoptische Übersetzung und Analyse der Kommunikationsstruktur* (WMANT 17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3), 1.

3 일부 P967의 조각들은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 프레데릭 조지 케니언(Frederic George Kenyon)에 의해 "The Chester Beatty Biblical Papyri. Description and Texts of Twelve Manuscripts on Papyrus of the Greek Bibl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필사본의 에스겔서 본문은 "원본 LXX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1938년에 프린스턴에서 존 사이데(John H. Scheide)의 소장품에 속한 다른 조각들이 출판되었고, 이러한 에디션들은 지글러(Ziegler)가 그의 LXX 본문을 준비하는 데 참고한 자료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S. S. S. Apóstolo, "Ezek 36, 37, 38 and 39 in Papyrus 967 as Pre-Text for Re-Reading Ezekiel," F. G. Martfnez & M. Vervenne (eds.), *Interpreting translation: studies on the LXX and Ezekiel in honour of Johan Lust* (BETL 192; Leuven-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336-338; Lilly, 윗글, 1. 또한 P967은 현재 모든 부분이 출판되었으며, 쾰른에 보관된 파피루스는 "Papyrologia Colonensia" 웹사이트 <http://www.uni-koeln.de/phil-fak/ifa/NRWakademie/papyrologie/PTheol1.html>에서 컬러 이미지로 직접 볼 수 있다.

4 핀스터부쉬는 이러한 점을 자신의 연구의 의의로 제시한다. Finsterbusch/Norbert, 윗글, 2.

5 M. V. Blischke,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FAT 2, Reihe 112; Tübingen: Mohr Siebeck 2019), 200.

P967 연구를 칠십인역(이하 LXX) 본문 전승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해석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P967에서 나타나는 본문상의 차이점을 단순한 필사 오류로 간주하였고, 쿰란 두루마리의 발견 이후 P967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감소했다.⁶

그러나 최근 들어 P967은 에스겔서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필사본으로 재평가되었다. 이는 헬라어 성서 초기 전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P967은 MT와의 비교를 통해 성서 본문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본문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P967의 에스겔서 연구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두 본문을 비교하여 '구원 기대와 구원 방법의 차이'라는 신학적 해석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루아흐(רוּחַ, 하나님의 영)의 역할과 이해를 분석하여, 두 본문에 담긴 독특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2. MT와 P967의 에스겔서

1) P967의 간략한 연구사

P967은 MT의 본문에서 에스겔 36장 23b-38절이 누락된 사본으로, 라틴어 사본인 비르체브루겐시스(6세기)에서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누락되어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누락을 필사자의 단순한 실수로 간주했으나, 요한 루스트(Johan Lust)가 1980년대 초에 발표한 선구적

6 P967의 짧은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과 연구사는 Lilly, 위글, 28-79을 참고하라.

인 연구를 통해 P967이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중요한 사본으로 재평가 되었다. 루스트는 P967이 히브리어 대본(Vorlage)의 초기 형태를 반영하며, MT에 나타나는 주요 변형들이 주석적 편집의 결과임을 입증하여 주목받았다.⁷ 특히 P967의 36장 23b-38절 누락은 MT 본문이 후기 전승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루스트의 연구 이후 P967의 본문 구성과 번역상의 차이는 에스겔서 본문 연구에서 중요 논의 주제가 되었고 다양한 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보완했다. 엠마누엘 토브(Emanuel Tov)는 P967의 짧은 본문이 번역자의 의도적인 생략이 아니라, 번역자가 사용한 히브리어 대본 자체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었다. 그는 이를 통해 성서 본문이 형성되는 문학적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 유진 울리히(Eugene Ulrich) 역시 이러한 연구를 ‘다양한 문학적 편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며,⁹ P967을 본문 비평적 연구를 넘어 문학 방법론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¹⁰

2000년 초, 루스트의 업적을 기리는 연구에서 스카톨리니 아포스톨로(S. S. Scatolini Apóstolo)와 반 더 코이(A. van der Kooij)는 각각 루스트의 주장을 해설하고 보충한다. 아포스톨로¹¹는 P967의 에스겔 38-39장이 종말론적 또는 묵시록적 차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고, 반 더 코이

7 J. Lust, “Ezekiel 36-40 in the Oldest Greek Manuscript,” *CBQ* 43/4 (1981), 517-533.
 8 E. Tov, “Recens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MT and LXX of Ezekiel,” *ETL* 62 (1986), 99-101.
 9 울리히는 고대 본문 연구의 목적이 더 이상 원래 본문(Urtext)을 찾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 Ulrich,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SDSSR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99), 14-15, 106-107.
 10 릴리는 울리히의 연구가 본문 비평적 연구의 독립된 영역을 넘어 다양한 문학적 관본들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한다. Lilly, 윗글, 3-4, 특히 각주 15.
 11 Apóstolo, 윗글, 331-357.

(A. van der Kooij)¹²는 P967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번역되었거나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LXX 연구 모음집에는 P967의 번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두 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먼저 지그프리트 크로이저(Siegfried Kreuzer)는 P967을 성서의 단락 구분과 단락 번호 매기기 체계 발전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 하며,¹³ 이 필사본이 ‘종말’ 이해에 큰 관심을 가졌던 초기 유대교의 신학적 논쟁과 전승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서, 본문상 차이는 구원의 선포와 구원의 기대에 있어 강조점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카트린 하우스피(Katrin Hauspie)는 P967의 번역 기법을 분석하면서,¹⁴ 이 필사본이 단순한 번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특정한 해석학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P967을 번역자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번역 과정에서 대본에 대한 다른 해석적 접근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P967은 MT와 다른 비(nicht)-마소라적 대본을 기반으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된 프로토-마소라(proto-masoretischen) 대본¹⁵보다 대체로 더 오래된 본문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A. van der Kooij, “The Septuagint of Ezekiel and Hasmonaean Leadership: Papyrus 967 as Pre-Text for Re-Reading Ezekiel,” F. Garcia Martfnez & M. Vervenne (eds.), *Interpreting translation: studies on the LXX and Ezekiel in honour of Johan Lust* (BETL 192; Leuven-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437-446.

13 S. Kreuzer, “Papyrus 967,” M. Karrer/W. Kraus (Hgg.),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64-82.

14 K. Hauspie, “The Idiolect of the Target Language in the Translation Process: A Study of the Calques in the LXX of Ezekiel,” M. Karrer/W. Kraus (Hgg.),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205-213.

15 프로토-마소라적이라는 용어는 ‘마소라적’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중세에 활동한 ‘마소라 학자들’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참고. Finsterbusch/Norbert, *윗글*, 2.

그러나 이에 대해 헥터 패트모어(Hector M. Patmore)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쿰란과 마사다(주전 1세기 후반)에서 발견된 에스겔서의 사본들이 P967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토-MT와 일치하는 본문을 포함한다고 평가한다.¹⁶ 이를 통해 짧은 본문이 MT로 확장된 것이라는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에스겔서의 두 가지 다른 본문이 오랜 기간 동안 동시적으로 유통되었으며, 어느 본문이 우선한다고 확립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최근의 P967과 MT의 에스겔서 연구는 본문비평적 연구에서 벗어나 문학적 분석으로 확장되고 있다. 애슐리 크레인(Ashley Crane)은 “본문-비교 방법론(A textual-comparative methodology)”을 사용하여,¹⁷ P967와 MT의 에스겔서 본문을 회복에 대한 다양한 편집본으로 제시한다. 그녀는 초기의 본문 비평적 분석이 이러한 문학적 연결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2010년대에 들어, 잉그리드 릴리(Ingrid A. Lilly)는 P967이 에스겔서의 두 가지 주요 판본(MT와 LXX)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릴리는 P967이 독특한 문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에스겔서의 문학적 편집사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그녀는 P967이 초기 성서 본문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MT는 에스겔서의 보다 발달된 본문 단계를 반영하고, 두 편집본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10년 후, 카린 핀스터부쉬(Karin Finsterbusch)와 노어베르트 야코비

16 H. M. Patmore, “The Shorter and Longer Texts of Ezekiel: The Implications of the Manuscript Finds from Masada and Qumran,” *JSOT* 32.2 (2007), 231-242.

17 A. S. Crane, *Israel's Restoration: A Textual-Comparative Exploration of Ezekiel 36-39* (VTSup 122; Leiden: Brill, 2008), 1-4, 7-10.

18 Lilly, 윗글, 7.

(Norbert Jacoby)가 P967이 MT와 다른 비-마소라적 대본을 가졌음을 재 확인했다. 그들은 기원전 1세기, 곧 권위 있는 히브리어 성서가 표준화 되기 전까지 여러 에스겔서 본문이 병행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P967을 제시했다.¹⁹

이와 같은 P967 연구의 간략한 연구사는 구약 성서 본문 비평과 전승사 연구에 있어서 P967의 중요한 위치를 보여준다. 이 필사본은 에스겔서의 초기 헬라이어 번역본 중 하나로서, MT와의 본문상 차이를 통해 성서 본문 형성과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최근 연구는 P967을 문학 비평적으로 접근하며, MT와의 본문-비교 연구를 통해²⁰ 성서 본문이 서로 다른 대본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안하고, 단일한 전승이 아니라 다양한 전승과 신학적 해석의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어 성서 연구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2) 두 권의 에스겔서 비교: 본문 전승과 편집적 차이

P967과 MT의 에스겔서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²¹ 특히 에스겔 36-39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본문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P967의 누락된 본문과 본문 배열 방식에서 발견된다.²²

19 Finsterbusch/Norbert, 윗글, 1-15.

20 P967의 연구사 또한 사실상 에스겔 연구 추이를 따른다. 임시영, “에스겔 연구사: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3집 (2014), 281-324.

21 에스겔서에서 MT와 LXX 간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토브는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35-40%에 달하는 차이와 비교했을 때 에스겔서의 MT와 LXX 간의 차이는 4-5%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차이가 “번역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미 번역자의 히브리어 원문에 존재했는지 여부”라고 말한다. MT와 LXX 에스겔서 간의 구체적인 본문 차이에 대한 정보는 Tov, 윗글, 91-99를 참고하라.

22 P967과 MT의 에스겔 36-39장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두 본문 간의 문학적 변형에 대해 연구한 Lilly, 윗글, 131-300와 두 본문을 비교 번역하고 있는 Finsterbusch/Norbert, 윗글, 320-363을 참고하라.

MT와 P967의 에스겔 본문 배열과 핵심 내용

MT		P967	
35:1-36:15	에돔의 산들/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약속	35:1-36:15	에돔의 산들/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약속
36:16-23	거룩한 이름과 정결	36:16-36:23a	거룩한 이름과 정결
36:24-28	새 영과 새 마음	(없음)	
36:29-38	황폐한 땅의 회복		
37:1-14	마른 뼈 환상	38-39장	마곡 땅 곡에 대한 심판
37:15-28	하나님 백성의 구원		
38-39장	마곡 땅 곡에 대한 심판	37:1-14	마른 뼈 환상
		37:15-28	하나님 백성의 구원
40-48장	새 땅과 새 성전	40-48장	새 땅과 새 성전

P967은 MT와 달리 에스겔서의 장 순서가 에스겔 36-38-39-37 장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는 MT와는 상이한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P967에서는 36장 23b-38절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본문 누락은 ‘마이너스 본문(minus text)’이라고 불린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번역자의 실수로 여겼다. 그러나 P967의 번역 특징을 분석한 결과, P967이 사용된 히브리어 대본을 충실히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P967은 대본의 히브리어 어순을 모방하고, 히브리어 구문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특징을 가진다.²³ 하지만 동시에 P967은 일부 구문은 의미에 맞춰 번역되었으며, 번역자가 개념적 일

23 핀스터부쉬는 P967의 번역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헬리어 본문을 통해 히브리어가 ‘울려 퍼지는’ 느낌을 주며, 자주 헬리어가 비문법적 구조(특히 병렬 구문의 해)로 인해 긴장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윗글, 2, 특히 각주 9.

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았고,²⁴ 강조된 번역과 해석적인 번역 등 번역상의 약점도 가지고 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P967은 히브리어 에스겔서를 청중에게 '원본에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으며, 임의로 책을 축소하거나, 단락이나 장을 재배치하는 등의 지나친 개입을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P967와 MT의 장 순서의 차이나 누락된 36장 23b-38절은 P967이 사용한 히브리어 대본이 프로토-마소라적 대본과는 여러 세부 사항, 범위,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비-마소라 대본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²⁶

이에 더하여 쿰란에서 발견된 일곱 개의 히브리어 에스겔서 사본 조각도 비-마소라적 히브리어 대본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한다.²⁷ 이들 사본은 기원전 1세기 중반에서 기원후 1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세 개의 사본(1QEzek; 3QEzek; 4QEzekc)은 너무 단편적이어서 본문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른 두 개의 사본은 프로토-마소라적(4QEzeka; MasEzek)이고 나머지 두 개의 사본은 반(semi)-마소라적(4QEzekb; 11QEzek)으로 분류된다. 이 사본들은 제2성전기 유대 문헌에서 본문 비평적으로 중요한 에스겔서 인용문들이다.²⁸ 그러므로 P967과 MT가 서로 다른 히브리어 대본에 기초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이한 대본이란 이해에서 더 나아가 루스트는 P967의

24 예를 들어, P967은 히브리어 대명사 접미사와 전치사를 대체로 재현했으나, 히브리어 관사와 품사는 헬라이어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단수와 복수, 숫자와 집합 명사에 있어서도 일관된 번역을 보여주지 않는다. 윗글, 2-4.

25 윗글, 4.

26 '두 권의 에스겔서'라는 표현이 이러한 주장에서 시작된다. 윗글, 8.

27 윗글, 8. 12.

28 릴리와 핀스터부쉬는 바티칸 사본에서 발견된 에스겔 본문이 명백히 히브리어 본문에 맞춰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본문이 고대 헬라이어 에스겔 대본과 MT 사이의 발전 단계에 속한 본문 전통을 입증한다고 해석한다. Lilly, 윗글, 301-302; Finsterbusch/Norbert, 윗글, 8.

본문 순서, 즉 마른 뼈 환상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위치한 것과 36장 23b-38절에 있는 언약 선포의 누락이 신학적이고 문학적 일관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P967이 38-39장은 적의 운명,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40-48은 국가와 성전의 재구성을 다루며, 이를 통해 종말론적 구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²⁹ 특히, 36장 23b-38절이 후기 프로토-마소라 편집자가 37장과 36장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한 본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MT 편집자가 종말론적 전쟁 이후 부활 개념을 제거하고, 마른 뼈 환상이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도록 본문 순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다니엘 블록(Daniel I. Block)과의 대화³⁰ 이후, 루스트는 자신의 종파주의적 해석을 철회하고, MT 서술이 P967의 신화적인 경향을 역사화하기 위해 추가된 자료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³¹ 그의 결론은 MT가 이러한 역사화된 해석을 통해 초기 편집본인 P967과 다르게, 마른 뼈 환상 본문을 곡과의 전투 이전에 배치하여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죽었음을

29 Lust, 윗글, 529-533.

30 블록은 종말론에 대한 종파적 신학적 견해가 MT를 만드는 편집적 자극이었다는 루스트의 주장에 반대하고 후기-중간에 목시주의의 성장이 본문양식에서 예언의 재배열을 자극한 더 큰 세력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부활은 단순히 포로기에 나라의 재건에 대한 메타포라기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재건에 앞서 마지막 종말론적 사건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ICOT;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337-343. 이러한 블록의 주장에 동의하여 루스트는 MT의 “장점”은 종말과 목시주의에 관한 편집자의 견해와 어떻게든지 연결된다”고 말했다. J. Lust,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Stepbrothers?”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28-30; “Major Divergences between LXX and MT in Ezekiel,” A. Schenker (ed.) *The Earliest Text of the Hebrew Bib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oretic Text and the Hebrew Base of the Septuagint Reconsidered* (SBLSCS 52; Atlanta: SBL, 2003) 54.

31 윗글, 83-92.

암시하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³² 이렇듯 루스트의 연구는 P967과 MT의 차이가 단순한 필사 과정의 오류나 우연한 차이가 아니라, 성서 본문 형성과 전승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학적·편집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P967과 MT의 본문상 차이는 성서 본문이 다양한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문헌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서 본문의 형성 과정과 신학적 메시지가 본문 배열과 편집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3. 두 권의 에스겔서가 제시하는 구원 선포 방식 비교

P967과 MT 간의 신학적 차이는 특히 33장 이후의 구원 선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36장과 37장, 38-39장의 사건 순서와 본문 배열이 달라지면서 구원 선포의 전달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P967에서는 특히 36장 23b-38절이 생략되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축소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 이는 MT에서 구원이 보다 명확하게 선포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전승 간의 신학적 이해의 차이를 반영하며,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32 윗글, 90.

내용에 따른 에스겔서의 MT와 P967의 구분된 사건 순서³³

MT		P967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인간 새 창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파괴에서 회복까지	
(미래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의 멸망		다양한 집단의 백성들의 명확한 소속구분	
33:23-33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포로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33:23-33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포로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과거/현재의 땅에서) 나쁜 목자들의 심판		34장	나쁜 목자들과 좋은 목자
34장	나쁜 목자들과 좋은 목자	귀환을 위한 이스라엘의 황폐한 지역 회복	
귀환을 위한 이스라엘의 황폐한 지역 회복		35:1-36:15	에돔의 산들/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약속
35:1-36:15	에돔의 산들/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 인식을 위한 미래 전쟁 조건으로서의 귀환	
귀환한 자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준비			
36:16-38	새 영과 새 마음	36:16-36:23a	포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포로 귀환을 위한 준비		(없음)	
37:1-14	마른 뼈들의 환상	38-39장	마국 땅 곡에 대한 심판
(미래의 땅에서) 하나의 백성, 하나의 목자		포로들의 귀환을 위한 준비	
37:15-28	하나님 백성의 구원	37:1-14	마른 뼈들의 환상
(미래의 땅에서) 곡의 멸망과 귀환자들의 영적 축복		하나의 백성, 하나의 목자, 새 땅과 새 성전	
38-39장	마국 땅 곡에 대한 심판	37:15-28	하나님 백성의 구원
40-48장	새 땅과 새 성전	40-48장	새 땅과 새 성전

33 이 표는 MT와 P967의 내용적 흐름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을 보여주기 위해 핀스터부쉬가 이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녀의 표에 따르면, P967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MT는 겔 36:16-38을 중심으로 교차 대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Finsterbusch/Norbert, 윗글, 10-11.

P967는 38장과 39장을 37장 앞에 배치하여 구원에 대한 기대를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낸다. 이런 배열로 인해 구원은 임박한 사건으로서 에스겔의 환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보다는 전 세계적인 심판과 관련된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조는 P967이 구원을 복합적이고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P967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과 관련된 미래의 종말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MT에서는 36장과 37장의 구원 메시지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36장 23b-38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구원을 명확히 선포한다. 이는 MT에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적 변화와 회복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또한 MT는 37장을 38-39장 앞에 배치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스라엘의 부활과 새로운 공동체 형성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구원은 단순히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인적인 회복 과정임을 강조한다.

1) 시대와 계층에 따른 차이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P967과 MT의 차이를 특정한 시대적 맥락과 계층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P967에서는 38장의 곡과의 전투에서 죽은 자들의 뼈가 37장의 마른 뼈와 나란히 언급된다.³⁴ 또한 37장 후반부는 40-48장으로 이어지는 성소 회복의 자연스러운 도입부 역할을 한

34 루스트는 P967에서 곡과 그의 군대의 뼈와 이스라엘의 마른 뼈가 종말론적 전쟁 후의 완전히 달라질 상황, 곧 적의 뼈는 방치되지만 이스라엘의 뼈는 부활할 것을 이중으로 서술하여, 종말론적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부흥을 시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Lust, 윗글, 531-532.

다. 크레인은 P967의 특징으로 37장 후반부와 40-48장으로의 즉각적인 변천을 주목한다. 그녀의 해석에 따르면 P967은 다윗이라는 메시아 아래 국가적 통합을 그린다. P967에서 메시아 역할은 토라를 준수하고 (24b절) 화평의 언약 아래 살며 (26절), 성소를 건설하는 것(26b절)이다.³⁵ 크레인은 MT가 제2성전기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 마른 뼈 환상과 다윗에 대한 약속을 곡과의 전투 이전에 배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친하스모니안 편집자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갱신을 위해, 그리고 군사적으로 적들에 맞서 일어설 수 있도록, 심지어 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통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³⁶

반면, 미하엘 콘켈(Michael Konkel)은 P967을 “하스모니안 및 반사독당파(antizadoki-dische) 선전”으로 해석하고, MT를 이 선전에 대항한 사독당파의 응답으로 이해한다. 콘켈은 MT가 다윗 왕조의 수립(37:15-28)을 곡과의 전쟁 이전에 위치시켜 하스모니안 왕조의 절정과 구원의 약속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성전과 종교적 질서에 대한 환상(40-48장)은 예루살렘에서의 하스모니안 제사 의식을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³⁷

이렇듯 동일한 본문에 대해 학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적 맥락과 주체를 반영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이러한 해석들에 대한 합의는 이루

35 Ashley, 윗글, 251.

36 크레인은 MT 본문을 더 늦은 본문이라고 보는 Lust의 주장을 수용하여 그 주장 위에 자신의 논지를 세우고 있다. 윗글, 253-254. 반 더 코이는 크레인 보다 앞서 간략한 글을 통해 MT의 편집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van der Kooij, 윗글, 437-446.

37 M. Konkel, “Das Ezechielbuch zwischen Hasmonäern und Zadokiden,” U. Dahmen/J. Schnocks (Hg.), *Juda und Jerusalem in der Seleukidenzeit. Herrschaft-Widerstand-Identität. Festschrift Heinz-Josef Fabry* (BBB 15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72, 74-75.

어지지 않고³⁸ 증명될 가능성도 적어 설득력이 떨어진다.³⁹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두 권의 에스겔서의 편집적 핵심이 MT의 추가 본문인 36장 23b-38절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MT는 인간 중심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추가하여, P967에 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론을 강화하고 있다.⁴⁰

2) 신학적 목표에 따른 차이

다른 학자들은 두 에스겔서를 신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다. 루스트는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이 에돔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에서와 이스라엘은 영토와 관련된다고 주장했다.⁴¹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서와 에돔보다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다. 세일산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으로 묘사되고, 에돔의 적대감은 칼로 표현된다. P967은 35장 10-15절에서 에돔을 향한 논쟁을 통해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한을 신화화한다. P967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려고 한

38 이 외에도 핀스터부쉬는 두 에스겔서 안의 언약 개념 차이에 주목하여 MT 본문에서 언약의 주제가 추가되었음을 밝히고, 프로토-마소라 대본의 형성이 초기 헬레니즘 시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K. Finsterbusch, "Ezechiel 33, 21-39, 29: Anmerkungen zum Profil der Sinneinheit in der nicht-masoretischen Textfassung (Papyrus 967) und zu Veränderungen durch proto-masoretische Redaktoren," M. M. Piotrkowski et al (Hg.), *Sources and Interpretation in Ancient Judaism* (AGJU 104; Leiden: Brill, 2018), 14, 117; "Concepts of Covenant in the Variant Literary Editions of Ezekiel (Old Greek Ezekiel and its Hebrew Vorlage and MT-Ezekiel)," Ch. A. Eberhart et al(Hg.), *Covenant – Concepts of Berit, Diatheke, and Testamentum* (WUNT 506; Tübingen: Mohr Siebeck, 2023), 132-136.

39 W. A. Tooman, *Gog of Magog: Reuse of Scripture and Compositional Technique in Ezekiel 38-39* (FAT II 52; Tübingen: Mohr Siebeck, 2011), 77-83.

40 이러한 비판적인 인간관은 토라를 강조하던 헬레니즘 혹은 하스모니안 시기와 맞지 않는다. Finsterbusch/Norbert, 윗글, 14.

41 J. Lust, "Multiple Translators in LXX-Ezekiel?" M. Karrer und W. Kraus (Hgg.),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89.

계획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악의의 결과로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실지를 선포한다. 이후 에스겔 35-36장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은 38-39장에 나오는 곡에 대한 심판과 즉각적으로 연결되며, 에돔과 곡은 역사적인 국가가 아닌 '적'의 전형적인 표상으로 신화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⁴²

반면에 MT에서 34장 31절과 36장 37-38절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양떼'와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에돔'과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P967에서는 MT의 이 구절들이 누락되었거나 '아담'에 대한 언어유희가 없다. 그리고 34장 31절의 "너희는 사람이요"라는 말은 모든 헬라이어 필사본에서 누락되었다.⁴³ 그렇기에 P967은 이스라엘의 신화적 적들을 심판하는 메시아적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MT는 이스라엘을 아담으로 묘사하고, 인간 거주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아포스톨로는 두 에스겔서의 신학적 목표의 차이가 '구원의 주체'에 있다고 본다. 그는 37장 1-14절이 환상과 신탁 요소(연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신학적 개념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3-10절은 인류학을 반영하는 반면(참고, 창 1:26-27; 2:7, 19; 전 3:20-21; 12:7; 욥 10:11, 17), 12-14절은 출애굽 용어와 함께 개별적이거나 심리적인 절망의 언어를 상기시킨다. 다시 말하면, 1-10절이 인간 창조를 연상시키는 용어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는 반면에, 11-14절은 절망에서의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42 J. Lust, "Messianism in LXX-Ezekiel: Towards a Synthesis," M.A. Knibb (ed.), *The Septuagint and Messianism* (BETL 195;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6), 417-430.

43 J. Lust, "Edom-Adam in Ezekiel, in the MT and LXX," P. W. Flint/E. Tov/J. C. VanderKam (Eds.), *Studies in the Hebrew Bible, Qumran, and the Septuagint presented to Eugene Ulrich* (VTSup 101; Leiden/Boston: Brill, 2006): 387-401.

44 Apóstolo, 윗글, 350.

P967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일산(에돔)과 같은 상태로 감소될 것이며, 곡(과 마곡)의 상징적 세력이 하나님의 순수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의해 물리쳐진 후에야 비로소 확고하게 확립될 것이다.⁴⁵ 진정한 이스라엘의 창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행위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자신들과 미래의 자신들을 구분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언급하며,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때,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종결될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⁴⁶

핀스터부쉬는 P967와 MT의 주제적 차이를 ‘구원의 지속성과 보증의 문제’로 설명한다. P967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땅으로 인도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최악의 역사로 묘사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다.⁴⁷ 물론 MT에서도 구원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MT는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36:23b-38)을 추가로 제시한다. MT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책감을 더 강조하고 있지만,⁴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 마음을 살 마음으로 교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9장 2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45 윗글, 351-352.

46 윗글, 352.

47 Finsterbusch/Norbert, 윗글, 11-12.

48 ‘자신을 더럽힘’이라는 주제는 모든 추가된 본문에 강조된다(겔 36:18; 37:23; 39:26). 따라서 프로토-마소라 대본의 편집자들이 본문 단위의 범위와 구조에 개입하여 내용적 초점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윗글, 12.

마지막으로 다른 두 학자는 두 에스겔서의 신학적 목표의 차이를 ‘부활’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크로이저는 MT에서 36장이 종말론적 갈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하는 묘사로 이어지는 반면, P967에서는 에스겔 37장의 부활 환상이 시간의 끝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부활로 이해된다고 본다. 그는 P967에서 부활이 시간의 끝과 영원한 구원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⁴⁹

릴리는 36장 23b-38절의 포함 여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인되는 사건을 다르게 틀짓고 있음을 밝힌다.⁵⁰ 그녀는 P967이 3세기 청중을 위한 에스겔 사본으로서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강조한다. 또한 ‘메섹’은 곡의 언어유희로, 메섹이 나타나는 모든 예에서 MT는 차이점을 보이거나 더 긴 본문을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녀는 MT에서 38-39장의 칠탁이 성취된 환상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⁵¹

이처럼 P967와 MT는 에스겔서에서 구원 선포와 그 기대에 대해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P967는 구원의 메시지를 축소시키고, 종말론적 사건들 사이에서 구원의 위치를 모호하게 만들어 보다 복잡적이고 장기적인 구원을 기대하게 한다. 반면에 MT는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영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선포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전승이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승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49 이러한 종말의 이해와 그 사건의 순서에 대한 질문은 초기 유대교에 중요한 문제였으며 쿨란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Kreuzer, 윗글, 64-82.

50 Lilly, 윗글, 304-306.

51 릴리의 연구는 에스겔의 MT가 보다 역사화된 편집이었다는 루스트의 기존 결론을 심화시키며, 에스겔의 전과 과정에서 그레고-로만 시대의 유대 종파적 논쟁이 미친 영향을 재검토한다. 그녀는 MT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민족적 정체성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윗글, 307-308.

제공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P967와 MT 모두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37장), 특징적인 차이(겔 36:23b-38)도 나타내는 루아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4. P967과 MT의 하나님의 영의 역할과 구원 선포

기존의 이해에 따르면, P967은 주로 물리적이고 민족적인 회복에 중점을 두며, 영의 역할도 이러한 물리적 회복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맥락에서 영은 주로 민족적 재건과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며, 구원 메시지의 중심은 물리적 회복이다. 그리고 MT는 영적인 재생과 윤리적 변화를 강조하며,⁵² 영이 구원의 도구로 해석된다. MT의 구원 메시지는 물리적 회복을 넘어, 내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MT의 하나님의 영이 P967은 언급하지 않은 주요한 서술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967에서는 하나님의 ‘나의 영’이 단 한번(37:14) 나타나며, 루아흐가 구원의 선포에 주요하게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루아흐는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는 요소로 등장한다(37:1, 5, 6, 8, 9, 10, 14). 39장 23절에 언급된 죽임당한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37장은 실제 죽

52 사사기와 같은 다른 성서본문과 비교하면, 에스겔서에서의 영의 임재는 사사들에게 임재한 영과 달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는 윤리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참조.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 「구약논단」 62집 (2016), 55-61;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사사들의 윤리,” 「구약논단」 87집 (2023), 213-243.

MT와 P967의 루아흐 본문 비교

MT		P967	
		39:29	… 내가 나의 진노를 이스라엘 집에 쏟을 것이다…
36:26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없음	
36:27	그리고 나의 영을 내가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37:1	…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동일함	
37:5	… 내가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37:6	… 너희 속에 영을 넣으리니…		
37:8	… 그 속에 영이 없더라		
37:9	… 너는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영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영아 사방에서 오라…		
37:10	…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37:14	내가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39:29	…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집에 쏟을 것이다…		

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거나, 종말론적 부활을 암시할 수 있다.⁵³ 37장 27-28절에서 야웨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예고하는 장면은 40-48장의 성전 환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MT에서는 영의 역할이 다르게 전개된다. 36장 23b-38절은 11장 19-21절과 18장 31절의 다른 루아흐 관련 본문들과 연결

53 콘켈은 이 질문을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onkel, 윗글, 72.

되며,⁵⁴ 이는 야웨를 선택하는 것이 생명과 죽음의 결정이라는 중요한 예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동시에 루아흐는 39장 29절의 ‘영의 부여 짐’(קִיבוץ/사파크)보다 37장 6절과 14절의 동사 ‘주다’(נָתַן/나탄)와 강하게 결합된다.

마라이케 블리슈케(Mareike V. Blischke)⁵⁵는 P967과 MT에서 루아흐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두 권의 에스겔서가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36장 23b-38절의 루아흐가 37장의 환상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야웨와 함께하는 삶을 위한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또한 39장 29절의 루아흐는 이어지는 성전 환상의 구원의 서곡이자 가능하게 하는 주체(Ermöglichung)로서 MT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회복의 요약이라고 주장한다.⁵⁶

따라서 P967과 MT 모두의 이스라엘 회복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36장 16-23a절, 그리고 MT에만 있는 36장 23b-38절과 루아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권의 에스겔은 서로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MT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선포와 그 기대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한 핵심 요소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제시한다.

첫째, ‘야웨의 거룩한 이름’이다. 36장 16-23a절은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주제로 39장 23-29절과 연결되며, 두 본문 모두에서 “야웨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모으는 것으로 표현된다.⁵⁷ 특별히 P967은 39장 29절에서 야웨가 이스라엘 집에 그

54 겔 36:26과 겔 11:19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주현, “에스겔서의 루아흐 연구: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논쟁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67호 (2024), 24-27.

55 Blischke, 윗글, 191-228.

56 윗글, 205.

57 A. Klein, *Schriftauslegung im Ezechielbuch: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Ez 34-*

의 분노를 부었다고 말하지만, MT는 야웨의 진노가 아닌 야웨의 영으로 나타나 37장 1-14절의 환상에서의 영의 부여를 상기시키고 이를 보증하는 역할 한다.⁵⁸

둘째, ‘화평의 언약’이다. 36장 16-23a절은 ‘화평의 언약’을 주제로 34장 25-30절과 37장 20-28절을 연결한다. 36장 16-23a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다단계 복원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⁵⁹ 이것은 예레미야와 레위기와도 관련된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의 수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갱신은 36장 23b-38절의 경우,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약속과 연결된다.⁶⁰ 또한 야웨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거주하겠다는 약속(레 26:11)과 축복과 저주가 언약 준수에서 시작되는 것은 레위기와 일치한다(참조, 레 26:3-46).⁶¹ 이러한 예언의 성취로 루아흐와 야웨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다(43:1-9).

셋째, ‘정화’이다. 36장 23b-38절은 신명기 전통에 대한 에스겔의 충실함에서 비롯되었으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의 암울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이 전통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환하도록 한다.⁶²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장기화된 유배 상황으로 인해 정화 없는 모임(신 30:1-5)과 마

39 (BZAW 391;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70-72.

58 P967의 ‘나의 진노’와 MT의 ‘나의 영’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주현,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רוּחַ)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22), 27-28, 120-121, 특히 각주 423; Finsterbusch/Norbert, 윗글, 356.

59 Klein, 윗글, 73.

60 루아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약속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주현,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רוּחַ/루아흐)’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구약논단 92집 (2024), 118-120.

61 김주현, 윗글, 121-122. 또한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영에 대해서는 시편 84편을 고려할 수 있다.

62 J. R. Levison, *Filled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l., 2009), 93.

음의 할례(신 30:6)보다 더 급진적인 정화의 해결책이 필요했다. 희망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정화(겔 36:25)와 새 마음의 이식(겔 36:26)과 하나님의 영의 수여(겔 36:27)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MT는 36장 16-23a절에 23b-38절을 더하여 야웨의 이름과 언약 관계, 정화와 이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에스겔서 전체와 성서의 다른 책들과 열개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유와 방법을 해석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P967와 MT의 핵심적인 차이점인 36장 23b-38절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에스겔서에서 구원 선포와 그 기대를 해석하면, 기존의 이해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MT의 입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MT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한 구원 선포는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한다.⁶³ 이상적인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회심이나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⁶⁴ 하나님의 영을 내재한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창조는 예언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보고 체험하며 해석하는 방식을 거쳐야 한다.⁶⁵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한 되돌림과 재창조는 단계적으로 성취되어, 그 이후에야 완전한 성취로 이어진다(참조. 37:8).⁶⁶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의 수여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직접적으

63 김주현, *윗글* (2024, L), 123-127.

64 사실상 예언서에서 회개와 구원의 관계는 심판경험 전후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 차준희, 「구약 예언서 수업」(서울: 감은사, 2024), 117-130. 또한 포로기와 포로 이후 예언서에서 회개와 구원의 행위주체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형근, “너는 돌아와 다시 야웨의 말씀을 청종하고(신 30:8)-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שוב) 슈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2집 (2024), 117-120.

65 Levison, *윗글*, 99-100.

66 레비슨은 성전 환상에서 보여주는 회복이 손 너비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회복이라고 말한다. *윗글*, 94.

로 연결된다(겔 36:28; 37:25; 39:28).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의 회복은 하나님 중심의 언약관계로의 회복으로 이어지며,⁶⁷ 안야 클라인(Anja Klein)은 에스겔서의 기본층(35:1-36:15)이 땅의 복원이 이루어진 후 민족의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⁶⁸ 존 레비슨(John R. Levison)은 에스겔의 재창조에 대한 환상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며(36:33-35),⁶⁹ 하나님의 영을 통한 회복의 약속은 에덴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음을 강조한다.

MT 이후,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재창조와 땅의 회복 사이의 관계는 쿰란의 찬송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쿰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을 찬양한다(참조. 1QH V24-25; 1QH VIII19-20; 1QH XX11-12).⁷⁰ 하나님의 영을 통한 정화와 재창조는 공동체의 입문과 연결되며, 부활의 약속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다(참조. 겔 37:10; 37:13).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이스라엘 땅으로의 회복이었다.⁷¹

5. 나오는 말

아마도 성서 문헌 본문의 표준화는 기원전 1세기와 기원후 1세기 후반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은 ‘히브리 성서’로서의 정경화와 거의

67 김주현, *읽글* (2024, 나), 119.

68 Klein, *읽글*, 66-70.

69 Levison, *읽글*, 100-103.

70 *읽글*, 205-206.

71 *읽글*, 207-208.

같은 시기에 일어났을 것이다.⁷² 이 연구는 그 시기에 함께 발전하고 있었던 에스겔서의 두 주요 본문인 MT와 P967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해, 두 문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는 P967의 연구사와 MT와의 비교를 통해 각 본문이 지닌 문학적, 텍스트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P967는 종말론적 사건들 사이에서 구원의 위치를 모호하게 제시하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MT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영적 변화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제시한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루아흐의 역할과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P967와 MT 모두에서 루아흐는 구원 선포와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두 문서에서 루아흐가 등장하는 방식과 그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MT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소로 등장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적 재창조와 회복을 통해 구원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며, 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원 과정을 뒷받침한다. 반면 P967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보다 제한적이고, 물리적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MT의 하나님의 영이 단순히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재창조와 윤리적 변화 넘어, 아웨의 거룩한 이름, 화평의 언약, 정화와 에덴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MT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단순한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내적 변화와 하나님

72 고대 이스라엘에서 형성된 다양한 에스겔 본문에 대한 개요는 다음을 참고하라. Finsterbusch/Norbert, 윗글, 1-2, 15.

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정을 이끌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P967와 MT 간의 신학적 차이점을 통해, 성서 본문의 전송과 편집 과정에서 신학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두 문서에서의 루아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성서 신학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분을 보완하고, 에스겔서의 구원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주현,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רוח)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22).
- _____, “에스겔서의 루아흐 연구: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논쟁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67호 (2024): 7-36.
- _____,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רוח/루아흐)’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구약논단』 92집 (2024): 106-132.
- 소형근, “너는 돌아와 다시 야웨의 말씀을 청중하고(신 30:8):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שוב)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2집 (2011): 105-123.
- 서재덕, “성전과 인간-시편의 성전신학,” 『구약논단』 79집 (2021), 97-130.
- 이샤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 이샤야와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2집 (2016), 44-69.
- _____, “하나님의 영과 사사들의 윤리,” 『구약논단』 87집 (2023), 213-243.
- 임시영, “에스겔 연구사: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3집 (2014): 281-324.
- 차준희, 『구약 예언서 수업』 (서울: 감은사, 2024).
- Apóstolo, S. S. Scatolini, “Ezek 36, 37, 38 and 39 in Papyrus 967 as Pre-Text for Re-Reading Ezekiel,” F. García Martínez & M. Vervenne(eds.), *Interpreting translation: studies on the LXX and Ezekiel in honour of Johan Lust* (BETL 192;

- Leuven-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331-357.
- Blischke, M. V., *Der Geist Gottes im Alten Testament* (FAT 2. Reihe 112;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NICOT;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Crane, Ashley S., *Israel's Restoration: A Textual-Comparative Exploration of Ezekiel 36-39* (VTSup 122; Leiden: Brill, 2008).
- Finsterbusch, K., "Ezechiel 33, 21-39, 29: Anmerkungen zum Profil der Sinneinheit in der nicht-masoretischen Textfassung (Papyrus 967) und zu Veränderungen durch proto-masoretische Redaktoren," M. M. Piotrkowski et al (Hg.), *Sources and Interpretation in Ancient Judaism* (AGJU 104; Leiden: Brill, 2018): 109-129.
- _____, "Concepts of Covenant in the Variant Literary Editions of Ezekiel (Old Greek Ezekiel and its Hebrew Vorlage and MT-Ezekiel)," Ch. A. Eberhart et al (Hg.), *Covenant — Concepts of Berit, Diatheke, and Testamentum* (WUNT 506; Tübingen: Mohr Siebeck, 2023): 121-142.
- Finsterbusch, K./Norbert, J. *MTL-Ez 11, 25-48, 35 und LXX 967-Ez 11, 25-48, 35: Synoptische Übersetzung und Analyse der Kommunikationsstruktur* (WMANT 17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3).
- Hauspie, Katrin, "The Idiolect of the Target Language in the Translation Process: A Study of the Calques in the LXX of Ezekiel," M. Karrer/W. Kraus (Hgg.),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205-213.
- Klein, Anja, *Schriftauslegung im Ezechielbuch: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zu Ez 34-39* (BZAW 391;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 Konkel, M. "Das Ezechielbuch zwischen Hasmonäern und Zadokiden," U. Dahmen/J. Schnocks (Hg.), *Juda und Jerusalem in der Seleukidenzeit. Herrschaft-Widerstand-Identität. Festschrift Heinz-Josef Fabry* (BBB 15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59-78.
- Kreuzer, Siegfried, "Papyrus 967," M. Karrer/W. Kraus (Hgg.),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64-82.
- Levison, John R., *Filled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l., 2009).
- Lilly, Ingrid A., *Two Books of Ezekiel: Papyrus 967 and the Masoretic Text as Variant*

Literary Editions (VTSup 150; Leiden/Boston: Brill, 2012).

- Lust, Johan, "Ezekiel 36-40 in the Oldest Greek Manuscript," *CBQ* 43/4 (1981): 517-533.
- _____, "The Final Text and Textual Criticism: Ezekiel 39:28," *Ezekiel and His Book: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and their Interrelation* (BETL LXXIV; Leuven -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1986): 48-54.
- _____,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Stepbrothers?"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15-31.
- _____, "Major Divergences between LXX and MT in Ezekiel," A. Schenker (ed.) *The Earliest Text of the Hebrew Bib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oretic Text and the Hebrew Base of the Septuagint Reconsidered*, (SBLSCS 52; Atlanta: SBL, 2003): 83-92.
- _____, "Edom-Adam in Ezekiel, in the MT and LXX," P. W. Flint/E. Tov/J. C. VanderKam (Eds.), *Studies in the Hebrew Bible, Qumran, and the Septuagint presented to Eugene Ulrich* (VTSup 101; Leiden/Boston: Brill, 2006): 387-401.
- _____, "Messianism in LXX-Ezekiel: Towards a Synthesis," M.A. Knibb (ed.), *The Septuagint and Messianism* (BETL 195;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6): 417-430.
- _____, "Multiple Translators in LXX-Ezekiel?" M. Karrer und W. Kraus (Hgg.), *Die Septuaginta: Texte, Kontexte, Lebenswelten* (WUNT 219; Tübingen: Mohr Siebeck, 2008): 654-669.
- Patmore, Hector M., "The Shorter and Longer Texts of Ezekiel: The Implications of the Manuscript Finds from Masada and Qumran," *JSOT* 32.2 (2007): 231-242.
- Tooman, William A., *Gog of Magog: Reuse of Scripture and Compositional Technique in Ezekiel 38-39* (FAT II 52;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Tov, Emanuel, "Recens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MT and LXX of Ezekiel," *ETL* 62 (1986): 89-101.
- Ulrich, Eugene,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SDSSRL;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99).
- van der Kooij, A., "The Septuagint of Ezekiel and Hasmonaeen Leadership: Papyrus 967 as Pre-Text for Re-Reading Ezekiel," F. Garcfa Martfnez & M. Vervenne (eds.), *Interpreting translation: studies on the LXX and Ezekiel in honour of Johan*

www.kci.go.kr

Lust (BETL 192; Leuven-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437-446.

검색어

Papyrus 967, 맛소라 본문,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 구원선포

[ABSTRACT]

A Theological Analysis of Salvation Proclamation in the Book of Ezekiel through the Text-Comparison of Papyrus 967 and the Masoretic Text(MT):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רוּחַ, רִיח)

Joo-Hyun Kim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renew scholarly interest in Papyrus 967 (P967), which has historically received limited attention in academic discourse. By comparing P967 with the Masoretic Text (M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theological differences in their respective proclamations of salv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le of the spirit of God (רוּחַ, רִיח). The study begins wit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search history on P967, followed by a textual-comparative methodology that enables a detailed literary analysis of both P967 and MT to examine their theological distinc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P967 frames salvation within an eschatological context, where its portrayal is somewhat ambiguous and primarily centered on physical restoration. In contrast, the MT emphasizes salvation as an internal transformation, with the spirit of God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restoration and re-creation of Israel.

This study makes two significant contributions. First, it provide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underdeveloped research on P967, reevaluating its academic significance. Secon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MT, it offers an in-depth exploration of how

www.kci.go.kr

theological diversity is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these biblical texts, particularly emphasizing the centrality of the spirit of God in the process of salvation and restoration.

key words

Papyrus 967(P967), Masoretic Text(MT), The Book of Ezekiel, The Spirit of God(rûah), Salvation Proclamation

투고일: 2024년 10월 21일

심사일: 2024년 11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